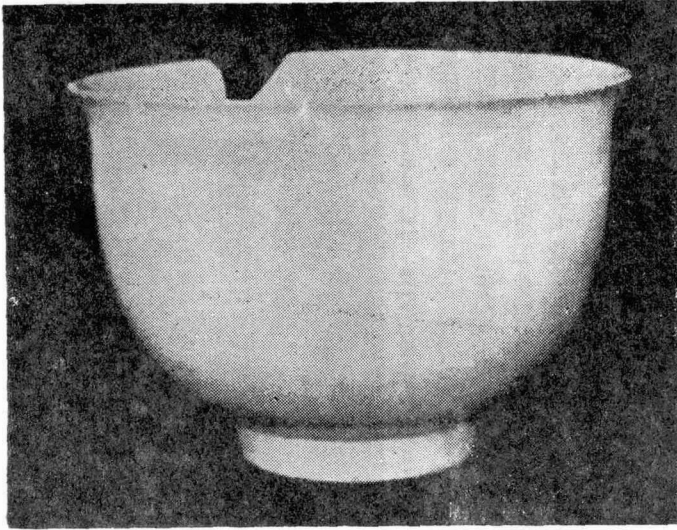


기에는 銘文이 없었다.

이 「辛亥銘」砂鉢은 典雅한 李朝前期砂鉢의 아름다운 形態를 잘 갖추었는데 白磁의 發色은 오히려 희다기 보다 溫雅한 灰白色에 가까우며 帶靑牙白의 失透性細藥이 많고 고르게 씨워져 있다. 굽은 分院前期白磁特有的 흠늬를 쓰지 않은 整齊된 施釉이며 比較的 높은 굽이 약간 안으로 오그라져 있고 銘文은 이 굽 밑에 서툰 솜씨로 오른쪽 半部에 「辛亥」 왼쪽 半部에 「左」字가 各其 線刻되어 있다. 左字의 意義는 尙解明되지 않으나 李朝初期의 「辛亥」는 世宗十三年(一四三二 A. D.)과 成宗二十二年(一四九二) 그리고 明宗六年(一五五二) 등으로 이 「辛亥」銘大接은 이제개의 辛亥중 그 어느 하나에 該當된다고 하겠는데 磁質과 器形制度로 보아서 이제까지 알려진 所謂 白磁專用時代에 가까운 遺物일 것으로서 아마도 一四三一、 또는 一四九一을 더 내려가지 않는 遺物로 推定이 되 어진다. 一例를 들면 國立博物館所藏 弘治十八年(一五〇五) 銘誌石과 伴出된 胎 質의 그릇 中에 이번 辛亥銘砂鉢에 恰似한 分院産砂鉢이 往 往 눈에 띄이며 이미 알려진 庚寅銘・壬辰銘의 註 同形 사발이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것은 兩者가 거의 同時代의 分院



第四卷 第四號 通卷三十三號

産일 것을 推定할 수 있게 해준다. 어쨌든 이 「辛亥」年의 比定은 좀더 資料를 갖추어서 次後에 詳考를 期할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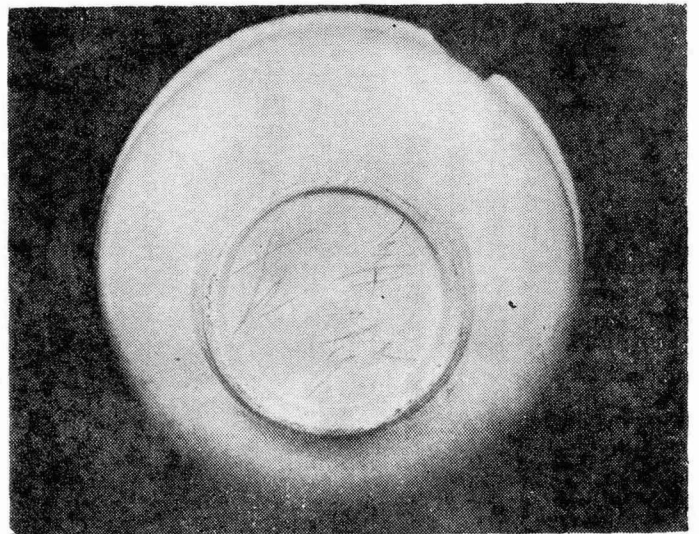
그릇의 높이는 一二 cm 口徑은 一七・四 cm 底徑 七・五 cm

(註) 庚寅(一五三〇) 壬辰(一五三三) 淺川伯教 推定(平凡社 陶磁器全書一七)

唐 朝 的 舍 利 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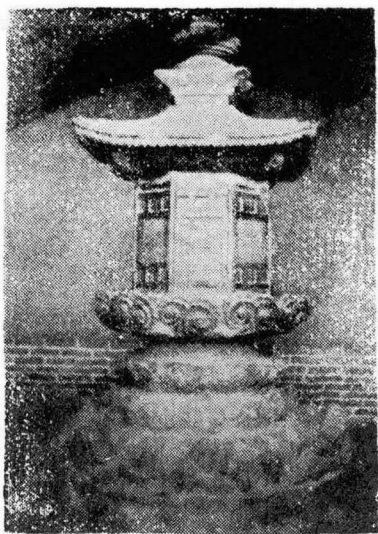
唐 朝 的 舍 利 塔

金 元 龍



足立喜六 著 「長安史蹟の研究」(東洋文庫 論叢第二十之一) P. 一一一에 鳩摩羅什의 舍利塔이 紹介되어 있다.

鳩摩羅什는 西域僧으로서 西紀四〇一年에 後秦姚興에 招聘되어 長安 西南方에 있는 逍遙園에 와서 譯經에 從事하였다. 其後 唐武宗代에 이 자리에 草堂寺가 세워지고 昭宗 때 勅命으로 重修된 일까지 있지만



現在는 보잘것 없는 寒寺로 되어 있다. 舍利塔은 이 草堂寺

西쪽의 숲속에서 있으며 黑大理石製全 高七尺八寸이다.

最下에는 方形臺 石이 있고 그 위에

須彌山을 表現한 圓 形臺石이 올라가고

그上部는二段으로 되어 鼓腹石같은 形態를 이루고 그 위에 얹힌 中臺 石은 雲唐草文을 陽刻하였고 다시 그 위에 塔身石이 있는데 八角形塔 身에는 前面에 門扉가 그 左右에 格子窓이 새겨 있다. 그리고 그 다음 二面은 無文 다음 二面에는 格窓이 또 나타난다. 그리고 앞에서 보면 門 扉形과 같은 面이 되는 最後面에는 姚秦三藏法師鳩摩羅什舍利塔이라는 銘이 있다.

塔身 위에는 합각지붕이 있고 그 斗栱部에는 佛畫가 陰刻되었으며, 지붕 위에는 欄干을 돌린 露盤위에 蓮華를 새긴 寶輪이 있다.

그런데 앞에 말한 塔身石 空間面에 北宋政和七年(一一一七年)에 여기를 訪問한 權邦彥의

鳩摩羅什之舍利塔 權邦彥□□□□親來 禮而作偈言 丁酉仲秋晦大士入 東土

云云의 刻銘이 있어 이것이 政和七年以前作이 確實하며 報告者인 足立氏는 下臺石의 山形이 玄宗의 石臺孝經(西紀七四五年)의 碑蓋石上의 山形과 一致하며 雲唐草文도 兩者가 같고 또 西紀八四一年의 玄秘塔碑의 碑蓋의 雲文과도 通하는 點이 많아 이 舍利塔을 八世紀乃至 九世紀 頃의 中唐作品으로 보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랜 舍利塔은 廉居和尚塔(七九〇年)인데 年代로 보면 彼此 비슷한데 形式上으로는 塔身의 八角形인 것과 三段으로 된 基

本構造는 通하나 細部에 있어서 差異點이 있다. 우리 것은 지붕도 八角 이고 臺石部가 모두 八角이다. 그리고 蓮瓣과 眼象이 基本장식이 되어 있다.

그러나 한편 羅末의 例——雙峰寺 澈鑑禪師浮圖같은 것은 亦是 八角이기는 하지만 下臺石에 唐塔같은 雲文이 새겨지며, 甲寺浮圖에서는 거기에 龍文이 섞여지고, 高達寺址浮圖에서는 龍이 立體的으로 머리를 들고 龜頭처럼 나오고 있다.

우리 나라에는 이렇게 八角蓮文式舍利塔과 八角雲龍文式舍利塔의 두개의 潮流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오랜 것이 西紀七九〇年이고 그以前에 올라가는 것이 없고 보면 八世紀쯤해서 中國式舍利塔의 아이디어가 들어왔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新羅의 工匠들이 八角塔身 밑에 在來式의 佛臺座形式을 變化시켜 添加해서 하나의 韓國式舍利塔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된다. 또 中國式을 따른 山雲文式에 있어서도 龍을 加하고 또 八角形이라는 基本形을 忘却하지 않은 한편 雲龍文 自體를 自體內에서 變化시켜 마침내 純韓國式形式으로 끌어 갔다고 할 수 있다.

完州 高山面 小向里的 石佛

鄭 永 鎬

全北 完州郡 高山面 小向里의 大雅貯水池 入口部落 발가운에서 坐像一 軀를 調査한 바 있다. 洞民들 말에 依하면 옛날에 이 一帶가 大利이였 다고 하는 바 現在 周邊밭에는 瓦片이 散在하고 石塔材等 其他 石片이 破損되어 있는 點으로 보아도 곧 廢寺址임을 짐작할 수 있으나 이에 關한 記錄은 없다. 佛像是 花崗石材로 結跏趺座하였는데 頭部는 缺하였다. 法衣는 右肩偏袒인데 어깨의 衣褶은 한 겹 뒤집혀져 左腕을 거쳐 膝上을 덮었으며 胸前에서 내려진 衣紋은 右膝上에 그대로 線刻되었고 坐像背面 에도 衣紋이 보인다. 手印은 右手는 完全하여 곧 觸地印임을 알 수 있는